

동결식과 진행상의 공기:

상 윤곽 및 상적 해석의 개념을 바탕으로

오 유 정*

<목 차>

1. 서 론
2. 선행 연구
3. 이/삼차원 국면 분석법과 상 합성 규칙
 - 3.1 Croft(2012)의 이/삼차원 국면 분석법: 상 윤곽 및 상적 해석
 - 3.2 Xiao & McEnery(2004)의 상 합성 규칙
4. 동결식의 상 잠재력과 진행상과의 공기
5. 결 론

1. 서 론

현대 중국어 동결식(V1V2)은 일반적으로 [+telic], [-durative]의 자질을 가진 성취류(achievement)로 분류된다. 성취류는 과정(process) 국면(phase)을 가지지 않는 순간적 사건으로, 완료상(perfective aspect)과 공기하지만 미완료상(imperfective aspect)과는 공기 하지 않는다. 동결식 역시 완료상 ‘了’와는 공기가 자유롭지만, 미완료상인 진행상 ‘正在, 在’ 및 지속상 ‘着’과는 공기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상 진행상 및 지속상과 공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아래의 예문을 보자.

www.kci.go.kr

* 고려대학교 중문과 강사

(1) a. 國有石油公司的壟斷地位正在被打破。(王媛 2011:72)

국영석유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타파되고 있다.

b. 他們對新鮮事物都充滿着熱情。(李麗云 2008:100)

그들은 새로운 현상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여전히 명쾌한 해석이 제시되었다 보기 힘들며, 특히 상황상(situation aspect)과 관점상(viewpoint aspect)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Croft(2012)는 ‘상 윤곽(aspectual contour) 및 상적 해석(aspectual construals)’의 개념을 도입하여 동사의 상황상은 한 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개념화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즉, 각각의 동사는 일정한 상 윤곽을 가지고 있고, 여러 요인에 의해 상 윤곽 중 특정 국면이 현저성을 부여 받으며 다양한 상황상으로 상적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그는 시간 축(Time dimension, T)과 성질 축(Qualitative states dimension, Q)으로 구성된 이차원 국면 분석법(Two-dimensional phasal analysis)을 제시하고 상적 해석의 과정을 직관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내었다. 나아가 사역 연쇄(causal chain)의 개념을 추가하여 시간 축(T)과 성질 축(Q)으로 구성된 이차원 국면 분석법을 시간 축(T), 성질 축(Q) 및 사연 연쇄로 구성된 삼차원 국면 분석법¹⁾으로 확대하며 이론적 완성도를 높이고 분석의 활용도 역시 제고하였다.

Croft(2012)가 논의한 상 윤곽 및 상적 해석의 개념은 상황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뿐 아니라, 예문 (1)과 같이 상황상과 관점상 간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다. 본고는 Xiao & McEnerty(2004)의 상 합성 규칙을 참고하여 Croft(2012)의 이/삼차원 국면 분석법이 이러한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1) 여기에서의 이차원 및 삼차원은 평면과 입체의 개념이 아니라, 각각 두 개 및 세 개의 차원(dimension), 즉 시간 축, 성질 축 및 사역 연쇄로 구성된 기하도식을 의미한다.

적으로, 동결식의 상 합성을 동사, 동사구, 절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상적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삼차원 국면 분석법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결식과 미완료상의 공기 현상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다만, 편폭의 제한으로 본 논문에서는 동결식과 진행상 ‘(正)在’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먼저 동결식과 진행상의 공기 현상에 대한 선행 연구를 돌아보고, Croft(2012)의 상 윤곽 및 상적 해석의 개념과 이를 직관적으로 형상화 한 이/삼차원 국면 분석법, Xiao & McEnery(2004)의 상 합성 규칙을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결식과 진행상의 공기 현상을 분석한다. 마지막은 결론이다.

2. 선행 연구

일반적으로 ‘성취류’로 분류되는 동결식은 ‘과정’을 가지지 않는 ‘점’ 형태의 경계 지어진 구조로 이해된다. 경계 지어진 구조로서 동결식은 완료상과의 공기가 매우 빈번하여 중국어 초기 학습자들은 ‘동결식+了’를 하나의 공식처럼 습득하기도 한다. 반면, ‘과정’을 가지지 않는 ‘점’ 구조로서 동결식은 ‘과정’이 필요한 진행상과는 공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예문 (1)에서 보았듯 사실상 동결식과 진행상이 공기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처럼 예외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陳平 1988, 郭銳 1993, 王媛 2011 등).

陳平(1988)은 보어V2의 특징을 기준으로 동결식을 복합 변화류(complex change)와 단순 변화류(simple change)로 분류하고, 보어의 차이가 진행상과의 공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改良, 減少, 長大, 拉長, 縮短’ 등과 같은 복합 변화류의 보어(주로는 형용사)는 일정한 폭을 가진 변화를 나타내

지만, ‘打破, 推倒, 吃完, 磨好, 砸爛’ 등 단순 변화류의 보어는 그러한 변화의 폭을 가지지 않는데, 이 중 변화의 폭을 가진 전자는 진행상에 사용될 수 있지만 변화의 폭을 가지지 않는 후자는 진행상에 사용되지 못한다.

- (2) a. 他正在慢慢地把那根鐵絲拉直.
그는 천천히 그 철사를 곧게 펴고 있다.
b. *他正在慢慢地把那根鐵絲拉斷.
(그는 천천히 그 철사를 끊어지게 펴고 있다)
- (3) a. 他正在慢慢地把牌子舉高.
그는 천천히 팻말을 높이 올리고 있다.
b. *他正在慢慢地把牌子舉反.
(그는 천천히 팻말을 뒤집어지게 올리고 있다)

(王媛 2011:71-72)

예문 (2)는 동일한 동사 ‘拉’가 각각 보어 ‘直’ 및 ‘斷’과 결합하고 있다. 이때 (2a)의 보어 ‘直’은 굽은 상태에서 곧은 상태로 변하기까지 일정한 변화의 폭을 가진 반면, (2b)의 보어 ‘斷’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끊어지는 상태로의 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어 상응하는 변화의 폭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는 ‘正在’와 공기가 가능하지만, 후자는 공기가 불가능하다. 예문 (3) 역시 진행상과 공기하는 (3a)의 보어 ‘高’는 높고 낮음에 대한 일정한 변화의 폭을 가지지만, (3b)의 보어 ‘反’은 ‘정-반’의 이분적 개념으로 상응하는 변화의 폭을 가지지 않아 진행상과 공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문법성의 차이가 반드시 보어의 차이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동일한 보어가 서로 다른 동사와 결합한 경우에도 유사한 문법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 (4) a. 他正在慢慢地吃掉那个苹果.
그가 천천히 그 사과를 먹어 치우고 있다.
b. *他正在慢慢地扔掉那个苹果.
(그가 천천히 그 사과를 버려 치우고 있다)

- (5) a. 他正在把衣服熨平。
그가 옷을 평평하게 다리고 있다.
b. *??他正在把衣服放平。
(그가 옷을 평평하게 놓고 있다)

(王媛 2011:72)

예문 (4)는 변화의 폭을 가지지 않는 보어 ‘掉’가 각각 동사 ‘吃’ 및 ‘扔’과, 예문 (5)는 변화의 폭을 가지는 보어 ‘平’이 각각 동사 ‘熨’ 및 ‘放’과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문법성의 차이는 보어의 특징이 대립적으로 드러나는 (4)와 (5)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4a-b), (5a-b)의 사이에서 나타난다. 보어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陳平(1988)의 관점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郭銳(1993, 1997)는 [과정]을 기준으로 동사를 10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각각의 동사와 관점상의 공기 현상 역시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그의 동사 분류 중 동결식은 변화 동사(change verbs)로 분류된 Vd1, Vd2, Ve에 포함되는데, 이들 동사와 관점상의 공기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정]의 특징을 가지고 끝점을 가진 후한구조(後限構造) Vd류 중 Vd1은 진행상, 지속상 모두와 공기 가능하고, Vd2는 진행상과만 공기한다. 반면 [-과정]의 특징을 가진 Ve류는 진행상, 지속상 어느 것과도 공기하지 않는다. 아래는 각 부류에 포함된 동결식의 예이다.

- 1) 끝점을 가진 후한구조
 - Vd1[~着][在/正在~]: 提高, 增加, 改正, 縮小, 靠近 등
 - Vd2[*~着][在/正在~]: 離開, 消除, 破坏, 削弱, 說服 등
- 2) 점 구조 Ve[*~着][*在/正在~]: 听見, 加强, 碰見, 批准, 推翻 등²⁾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례가 발견된다.

www.kci.go.kr

2) 王媛(2011:70-71) 참고. 단, 王媛(2011:70-71)은 Ve류로 ‘看見’을 제시하고 있으나, 郭銳(1993)의 분류에는 ‘听見’만 포함되었을 뿐 ‘看見’은 제시되지 않았다.

- (6) a. 它從真理變成了一個問題，這就是一個正在被推翻的過程。
 그것은 (한때) 진리였으나 (이제는) 문제가 되었고, 이는 일종의 전복되어가는 과정이다.
- b. 中國與美、加、澳等國反腐敗合作正在不斷加強。
 중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 간의 반부패 협력이 부단히 강화되고 있다.

(CCL 코퍼스)

郭銳(1993, 1997)의 분류에서 ‘推翻’과 ‘加強’은 모두 점 구조인 Ve에 속하지만, (6a-b)에서 보듯 모두 진행상과 공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郭銳(1993, 1997)의 동사 분류는 어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논의에 포함된 동결식 역시 이미 어휘화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전체 동결식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른다. 더구나 상황상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어휘의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동사로서 동결식이 가지는 상적 자질이 문장 단계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王媛(2011)은 동결식의 사건성(종결성, 지속성)에 주목하여 ‘논항-사건’의 동형 관계(homomorphism)를 바탕으로 동결식과 미완료상의 공기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는 동결식의 종결성은 관련 논항NP의 지칭 대상과 보어의 지칭 사건 사이의 동형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종결점의 획득에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내부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과정을 가진 동결식만 진행상과 공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그러한 과정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성(즉, 과정)을 가지지 않는 순간 사건을 나타내어 진행상과 공기하지 못한다.

동결식 자체의 특징에만 주목한 여타의 연구와 달리, 王媛(2011)에서는 동결식과 기타 성분 간의 관계로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술어를 충당하는 동결식과 그 목적어의 관계에만 논의를 국한시키고 있어 동사구 이외의 성분이 상 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3. 이/삼차원 국면 분석법과 상 합성 규칙

문장의 상황상이 동사의 상적 자질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Croft(2012)의 상 윤곽 및 상적 해석의 관점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사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동사 뿐 아니라 문장 내 기타 성분이 상황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왔는데, 그 중 본고는 상황상을 어휘 층위와 문장 층위로 나누고 이를 상 합성의 관계로 설명한 Xiao & McEnery(2004)의 관점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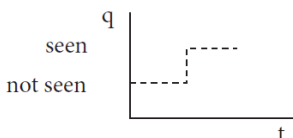
3.1 Croft(2012)의 이/삼차원 국면 분석법: 상 윤곽 및 상적 해석

Vendler(1967)가 [자연적 끝점($\pm$ end point)]과 [지속시($\pm$ continuous tense)]를 기준으로 상태(state), 활동(activity), 성취(achievement), 완수(accomplishment)의 네 가지 상황상을 구분한 이래, 상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 보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황상은 동사 자체의 자질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문장 내 각종 요소의 영향으로 달라질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Dahl(1987:27)은 동사의 사용은 놀랍도록 유연하다(astonishing flexibility)고 하였으며, Van Valin, R. & LaPolla, R.(1997:92) 역시 상황상은 맥락에 따라 본래의 상 유형과는 다른 해석(representation)이 이루어진다고 언급하였다.

Croft(2012)의 논의 역시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Croft(2012)는 동사의 상황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동사는 다양한 상황상으로 개념화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는 시간 축(T)과 성질 축(Q)으로 구성된 '이차원 기하도식'을 통해 동사의 상 윤곽을 직관적으로 나타내고, 상 윤곽 중 특정한 국면이 현저성을 획득하거나 상실함에 따라 그 상적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

한 이차원 국면 분석법을 동사 ‘see’를 예로 살펴보자(Croft 2012:53-55).

(7) 동사 ‘see’의 상 윤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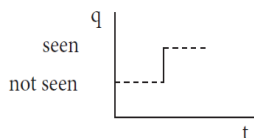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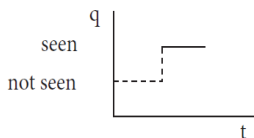
(7)의 이차원 기하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 ‘see’의 상 윤곽은 ‘보지 않는 국면(not seen)’, ‘보지 않는 국면에서 보는 국면으로 전이되는 국면(not seen to seen)’, ‘보고 있는 국면(seen)’ 등 총 3개의 국면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 윤곽을 가진 동사 ‘see’는 특정한 시-상 구조에서 각기 다른 상황상으로 상적 해석된다. 아래의 예를 보자.

(8) a. I see Mount Tamalpais.

b. I reached the crest of the hill and saw Mount Tamalpais.

(9)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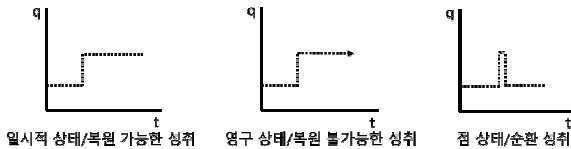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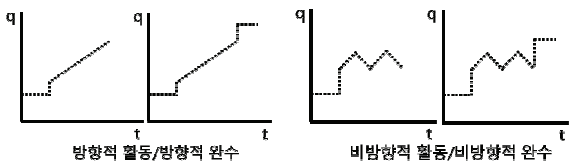
동일한 동사 ‘see’이지만, 현재 시제에 사용된 (8a)에서는 상 윤곽을 구성하는 3개의 국면 중 결과 상태 국면이 현저성을 부여 받아 ‘보고 있는(seen)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고 상태류로 상적 해석된다. 반면 과거 시제에 사용된 (8b)에서는 ‘보지 않는 국면에서 보는 국면으로의 전이(not seen to seen)’ 국면이 현저성을 부여 받으며 성취류로 상적 해석된다. (9a-b)는 이를 이차원 기하도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현저성을 부여받은 국면은 실선으로, 현저하지 않은 국면은 점선으로 표시된다.

Croft(2012)는 기존의 상태, 활동, 성취, 완수를 더욱 세분하여 11개의 하위 유형을 구분한다. 그러나 11개의 하위 유형은 서로 동일한 상 윤곽을 공유하되, 현저한 국면에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직관적이고 명쾌하다. 첫째, 성취와 상태의 하위 유형은 동일한 상 윤곽을 가진다. 일시적 상태(transitory state)와 복원 가능한 성취(reversible achievement), 영구 상태(permanent state)와 복원 불가능한 성취(irreversible achievement)가 각각 동일한 상 윤곽을 공유한다. 한편 그는 순간(semelfactive)을 성취의 하위 부류로 분류하고 이를 순환 성취(cyclic achievement)라 이름 지었는데, 순환 성취는 점 상태(point state)와 상 윤곽을 공유한다. 둘째, 활동과 완수의 하위 유형이 동일한 상 윤곽을 공유한다. 다만 완수는 활동의 상 윤곽에 종결점이 선의 형태로 추가되어 나타난다. 이때 과정 국면의 방향성 유무 역시 직관적으로 드러나는데, 방향성을 가지는 경우는 직선으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꺾은선으로 표시된다. 다음은 각 상황 유형의 상 윤곽을 이차원 기하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10) 상태와 성취의 상 윤곽



(11) 활동과 완수의 상 윤곽



동일한 상 윤곽을 가진 동사는 어떠한 국면이 현저성을 부여 받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상황상으로 상적 해석된다. 즉, 동사는 특정한 상황상으로 상적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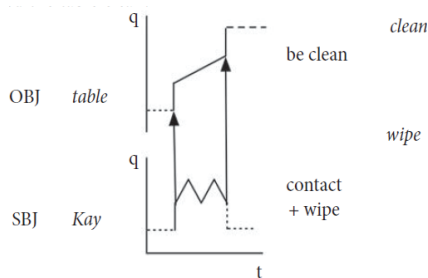
석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이차원 국면 분석법은 사역 연쇄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삼차원으로 발전된다. Croft(2012)는 모든 참여자 논항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가지며, 두 개(혹은 그 이상)의 논항으로 구성된 복합사건 구조는 각 논항이 가진 하위 사건이 사역 관계를 통해 연결된다고 가정한다. 즉, 이차원으로 표상된 각 하위사건은 동일한 시간을 공유하는 사역 관계(화살표로 표시)로 연결되고, 이를 통해 복합사건 구조는 아래와 같은 삼차원 기하도식으로 표상된다.

(12) a. Kay wiped the table clean.

b. [[DO(Kay)] CAUSE [BECOME [clean (table)]]]

c.



(Croft 2012:338)

예문 (12)는 ‘Kay’와 ‘테이블’ 두 개의 참여자 논항으로 구성된 복합사건 구조로, 이를 일반적인 논리식으로 나타낸 것이 (12b), 삼차원 기하도식으로 나타낸 것이 (12c)이다. 먼저 (12c)를 살펴보면, 두 논항이 가진 하위 사건은 각각 ‘활동’ 및 ‘완수’의 상 윤곽을 가지고, 이들은 다시 동일한 시간 축을 공유하는 사역 관계로 연결되어 삼차원 기하도식으로 표상된다. 이 때 ‘Kay’의 하위 사건과 ‘테이블’의 하위 사건 사이의 사역 관계는 시공간 상의 동형 관계로 나타나는데, 즉 행위자 ‘Kay’의 ‘닦는(wipe)’ 활동과 수동자 ‘테이블’이 ‘깨끗해지는(clean)’ 변화가 동일한 시공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비방향적 ‘닦는(wipe)’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점점 ‘깨끗해지는(clean)’ 방

향적 변화 역시 매우 직관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삼차원 기하도식은 (12b)의 논리식에 비해 보다 직관적일 뿐 아니라, 논리식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동사 자체의 시간적 특징(시점인지 혹은 시공간인지) 및 성질적 특징(변화하는지 변화하지 않는지, 방향성을 가지는지 가지지 않는지 등)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기하도식을 통해 사건의 상 구조와 사역 구조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으며, 세립적(fine-grained) 상 분석을 사역 구조의 분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역에 대한 전통적인 두 가지 관점, 즉 힘-역학론과 복합 사건론³⁾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Croft 2012:216-217).

3.2 Xiao & McEnery(2004)의 상 합성 규칙

그렇다면 동사의 상 윤곽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상적 해석을 확정하게 되는 것일까? 다시 말해, 상 윤곽을 구성하는 여러 국면 중 특정 국면이 현저성을 부여받는 과정을 어떠한가?

Xiao & McEnery(2004)는 상 합성을 어휘 층위와 문장 층위로 나누고 문장 층위의 상 합성 단계(composition of situation aspect at sentence level)를 핵(nucleus) 단계, 중심(core) 단계, 절(clausal)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중 핵 단계는 동사 단계에, 중심 단계는 동사와 논항이 포함된 동사구 단계에

3) 전통적으로 사역을 이해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역을 복합 사건을 구성하는 두 사건, 즉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 사이의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사역에 관한 법언어적 비교 연구는 주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언어에서 두 사건이 어떻게 표현(encoding)되는지 밝히는 것이 이들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에 비해, 현대 인지언어학을 중심으로 사역은 두 개의 사건이 아닌 두 개의 참여자 사이의 관계로 파악되는데, Langacker(1991)의 동작 연쇄(action chain)와 Croft(1991, 2012)의 사역 연쇄(causal chain)는 모두 사역을 참여자 사이의 동력 전달 관계로 이해한다(張翼 2014:81 참고). 한편, 삼차원 국면 분석법은 각 참여자가 가진 하위 사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복합 사건론적이지만, 동시에 참여자 사이의 동력 전달 관계가 사역 연쇄(화살표)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힘-역학론의 관점 역시 반영되고 있다.

해당하며, 절 단계는 동사와 논항으로 구성된 동사구에 비논항 성분까지 포함된 경우에 해당한다(Xiao & McEnery 2004:342). 다시 말해, 상황상은 동사의 자질이 반영된 핵 단계(동사 단계), 중심 단계(동사구 단계) 및 절 단계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상 유형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총 12개의 상 합성 규칙을 제시하는데, 여기에서는 본 논의와 관련된 일부 규칙만을 살펴본다.

이들이 제시한 상 합성 규칙에 따르면, 동결식의 형성은 동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작으로, 결과보어(RVCs)는 종결성을 가지지 않는 핵심 동사에 [+result]와 [+telic]의 자질을 부가한다. 아래의 규칙을 보자.

- (13) Rule1: Verb[-telic/±bounded]+RVCs → Derived predicate
[+result/+telic]

[-telic/±bounded]의 자질을 가졌던 동사에 결과보어가 추가되면서 동사는 [+result/+telic]의 자질을 가지는 파생 술어가 된다.

다음으로, 동사구 단계에서는 목적어 논항의 가산성 여부가 상적 자질에 영향을 미친다. 즉, 목적어의 가산성 여부에 따라 동사 단계에서 획득한 종결성이 유지될 수도, 상실될 수도 있는 것이다.

- (14) Rule 5: NP+Verb[+telic]+NP[+/-count] → Core[+/-telic]

동사 단계에서 동결식은 [+telic]의 자질을 부여받으나, 동사구 단계에서 만약 불가산 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면 동결식은 종결의 자질을 잃게 된다 [-telic].

마지막으로, 절 단계에서는 문장 내 기타 성분의 영향으로 종결의 자질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러한 기타 성분에는 전치사구, 부사구 등을 들 수 있다.

- (15) Rule 8: Core[+telic]+for-PP/from-to → Clause[-telic]⁴⁾

4)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Xiao & McEnery(2004)는 진행상을 종결성의 자질에 영향을 미

동결식의 경우, 결과 보어는 문장의 핵심 동사에 종결성을 부여한다. “他喝了酒, 可是沒喝醉(그는 술을 마셨으나 취하지 않았다).”와 “*他喝醉了酒, 可是沒喝醉(*그는 술을 취하게 마셨으나 취하지 않았다).”의 대립적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 보어에 의해 종결성이 부가 된 내용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은 동사 단계에 국한되는 것으로, 동사구 단계 및 절 단계를 거치며 이러한 자질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Croft(2012)의 표현을 빌자면, 상 윤곽은 각 단계를 거치며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시간 축과 성질 축에서 ‘점’ 및 ‘구간’의 변화를 겪고, 현저한 국면 역시 달라진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양한 상적 해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4. 동결식의 상 잠재력과 진행상과의 공기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동결식과 진행상의 공기 현상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결식의 형성은 동사 단계에서의 조작이며, 핵심 동사의 상 유형에 상관없이 동결식은 종결점을 가진 경계 지어진 상 유형이 된다. 아래의 기하도식을 보자.

(16) a. 張三打破了杯子.
장삼이 컵을 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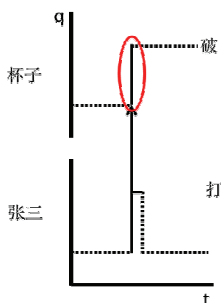
b. 張三擦干淨了桌子.
장삼이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다.

치는 일종의 ‘변화’로 간주하고 있는 점이다. 관점상 역시 상황상의 결합에 영향을 주는 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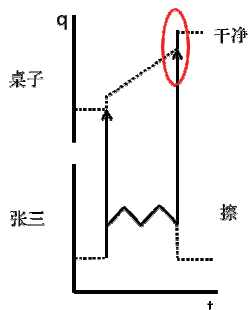
Rule 10: Core[+telic]+Progressive → Clause[-telic]

그러나 본고는 상황상과 관점상을 대등한 관계로 보고자 하는데, 상황상이 특정 관점상과의 공기에 필요한 자질을 가졌는지에 따라 양자의 공기 여부가 결정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상 윤곽에 진행상과 결합할 수 있는 자질이 포함된 경우, 즉 과정 국면이 포함된 경우에만 진행상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a'



b'



예문 (16a)와 (16b)는 각각 (16a')와 (16b')의 삼차원 기하도식으로 표현된다. 예문 (16a)에서는 '张三'의 순간적 접촉 활동 '打'와 이를 통해 컵이 깨지는 사건이 사역 연쇄를 통해 연결되고 있다. 이때 보어 '破'는 사건의 종결점으로 부여되며, 전체 상 윤곽 중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깨진 상태'로의 전이 국면이 현저성을 부여받는다. 예문 (16b)의 경우, 동사 '擦'의 비방향성 활동이 진행되는 동일한 시간 동안 수동자 '테이블'은 '干净'의 종결점으로 향하는 방향적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의 전이 국면이 종결점으로써 현저성을 부여받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보어로 사용된 동사(혹은 형용사)의 상 윤곽과 상관없이, 즉 점의 형태이든 구간의 형태이든 혹은 방향성을 가지는 방향성을 가지지 않든 모두 보어의 상태가 출현하기 이전에서 보어의 상태가 출현하는 이후로의 전이 국면이 현저성을 부여받는다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이어지는 동사구 단계 및 절 단계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면, 완료의 관점상 '了'와 공기가 가능하게 된다. 반면, 전이 이전 및 전이 이후의 국면은 현저성을 부여받지 못해 현저한 과정의 국면이 필요한 '(正)在'와는 공기하지 못한다.

동사구 단계에 이르면 목적어의 가산성 여부가 상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복수 목적어의 출현은 동사구 단계의 상 유형을 과정을 가지지 않는 점 구조에서 과정을 가지는 구간 구조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절의 단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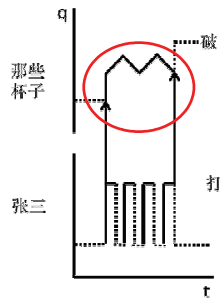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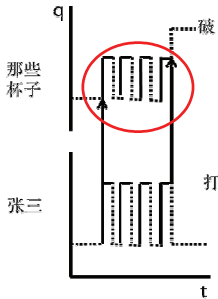
지 유지된다면, 이 문장은 진행상과 공기가 가능하다.

(17) a. 張三正在打破那些杯子。

장삼이 그 컵들을 깨고 있다.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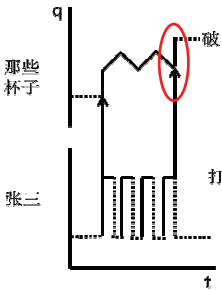


앞선 (16a)의 예가 ‘장삼의 타격이 컵을 깬’ 순간적 사건을 나타낸다면, 복수 목적어 ‘那些杯子’가 사용된 (17)은 ‘장삼의 타격이 컵을 깬’ 순간적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삼차원 기하도식으로 나타낸 것이 (17b)이다. 한편, Croft(2012:95-99)는 조립적 척도 조절(coarse-grained scalar adjustment)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순환 성취는 비방향적 활동(undirected act)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복수 목적어의 사용으로 반복적인 성취 사건, 즉 순환 성취로 나타난 (17b)은 조립적 척도 조절을 통해 (17c)와 같은 비방향적 활동류로 해석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사실상 ‘각 컵이 깨지는’ 복수의 순간적 변화로 구성된 과정이므로 ‘그 컵들이 다 깨지는’ 종결점에 다다르기까지의 과정 국면은 현저성을 부여받아 실선으로 표시된다.

한편, 해당 예문은 완료상 ‘了’와도 공기가 가능한데, 이는 ‘그 컵들이 다 깨지기 전’에서 ‘그 컵들이 다 깨지는’ 순간으로의 전이 국면이 현저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 張三打破了那些杯子。

장삼이 그 컵들을 깼다.



다시 말해, 상 윤곽에 현저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국면이 존재한다면, 그 중 어떠한 국면이 현저성을 부여 받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상과의 공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수 명사 외에도 추상 명사 등 불가산 명사를 목적어로 취한 경우도 이와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아래의 예를 보자.

(19) a. 坦率地告訴你，我正在說服人們，我明年在黨的十三大時就退下來。

솔직히 말해 나는 내년 13차 인민대회에서 은퇴하겠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

b. 如今，隆隆的鉗機聲正在喚醒這塊沉睡千年的土地。

최근, 우르릉 울려 퍼지는 시추기 소리가 천년을 잠들어 있던 이 토지를 깨우고 있다.

c. 這種着眼于人的全面而自由的發展、强調教育要爲人的發展服務的思想已經和正在滲透到不少國家和地區進行的教育改革之中。

사람의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발전, 사람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강조에 착안한 사상이 많은 국가와 지역의 교육 개혁에 이미 침투했고, 현재도 침투하고 있다.

d. 云南這個野生動物王國正在被吃掉，這并不是聳人听闻，不是杞人憂天，是正在變爲現實的預言。

운남 이 야생 동물의 왕국이 먹혀가고 있다. 이는 과장도, 기우도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예언이다.

(21) a. 他正在慢慢地吃掉那个苹果。

그가 천천히 그 사과를 먹어 치우고 있다.

a'. *他正在慢慢地扔掉那个苹果。

(그가 천천히 그 사과를 버리고 있다)

b. 他正在慢慢地把那根鐵絲拉直。

그가 천천히 그 철사를 곧게 당기고 있다.

b'. *他正在慢慢地把那根鐵絲拉斷。

(그가 천천히 그 철사를 끊어지게 당기고 있다)

(王媛 2011:7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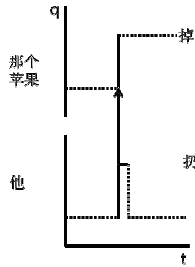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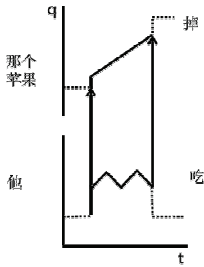
王媛(2011)은 상기 예문과 같은 문법성의 차이를 논항의 전체-부분 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정문인 (21a-b)는 종결성의 생성에 목적어의 각 부분이 참여하고 각 부분의 발전은 시간 축에서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진행상과의 공기가 가능한 반면, 비문인 (21a'-b')는 종결성의 생성에 참여하는 것이 관련 목적어 전체 혹은 완전한 상태로 이 경우 목적어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므로 진행상과의 공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삼차원 기하도식을 통해 이는 보다 직관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동사구 단계의 상적 특성과 '慢慢地'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상 윤곽이 부사어를 통해 현저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과정 국면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야 한다. 즉, 상기 예문의 적법성은 사실상 진행상의 사용 여부가 아닌 부사어 '慢慢地'의 사용 여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문 (21a-b) '吃掉', '拉直'의 상 윤곽은 '慢慢地'에 의해 현저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과정 국면을 가지고 있다면, (21a'-b') '扔掉', '拉斷'의 상 윤곽은 그러한 과정의 국면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먼저 예문 (21a-a')를 살펴보자. [他吃掉那个苹果]의 경우 '他'의 행위 동작 '吃'가 진행됨에 따라 '사과'는 '掉'의 종결점으로 향하는 방향적 변화를 겪다가 '沒(吃)掉'에서 '(吃)掉'로의 전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동사 단계에서는 이 전이 국면이 현저성을 부여 받으나, 이후 절 단계에서 부사어 '慢慢地'가 추가되면 '慢慢地'에 의해 종결점 이전의 과정 국면이 현저성을 부여 받게 되고, 본래 현저하던 전이 국면은 현저성을 상실하게 된다. 동작 '吃'의 행위가 아직 '掉'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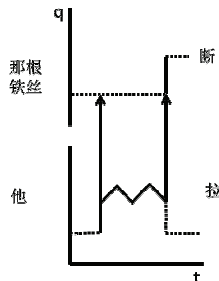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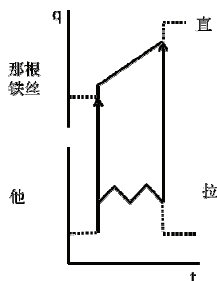
시하는 종결점에 다르지 않았음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결식은 현저한 과정 국면을 가지고 있어 진행상과 공기할 수 있다. 반면, ‘仍’은 순간적 행위 동작으로 ‘他’가 ‘仍’의 행위를 하는 그 순간 ‘沒扔掉’에서 ‘扔掉’로의 전이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他扔掉那个苹果]의 상 윤곽에는 부사어 ‘慢慢地’에 의해 현저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과정 국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진행상에서도 사용될 수 없다. 아래 (22a-b)를 비교해보자.

- (22) a. 他正在慢慢地吃掉那个苹果。 b. *他正在慢慢地扔掉那个苹果。
그가 천천히 그 사과를 먹어 (그가 천천히 그 사과를 버려 치
치우고 있다. 우고 있다)
- a' b'



마찬가지로, (21b-b')의 문법성 차이 역시 [他拉直那根鐵絲]와 [他拉斷那根鐵絲]의 상 윤곽에 행위 동작의 진행에 따른 과정 국면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서 비롯된다. 전자의 경우 ‘拉’의 진행에 따라 철사는 ‘直’의 종결점을 향해 방향적 변화를 겪게 되고, 이 방향적 변화 과정이 부사어 ‘慢慢地’에 의해 현저성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동결식은 진행상과 공기할 수 있다. 그러나 ‘斷’은 ‘沒斷’에서 ‘斷’으로의 순간적 전이 국면만 가질 뿐, 부사어 ‘慢慢地’에 의해 현저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과정 국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행상과도 공기할 수 없다. 아래의 (23a-b)를 살펴보자.

- (23) a. 他正在慢慢地把那根鐵絲拉直。 b. *他正在慢慢地把那根鐵絲拉斷
 그가 천천히 그 철사를 곧게 당기고 있다. (그가 천천히 그 철사를 끊어지게 당기고 있다)
 a' b'



5. 결 론

본고는 Croft(2012)가 제시한 상 윤곽 및 상적 해석의 개념을 통해 동결식의 상 잠재력과 동결식을 술어로 취한 문장의 상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Xiao & McEnery(2004)의 상 합성 규칙을 참고하여 상 합성의 단계를 동사 단계, 동사구 단계, 절 단계로 구분하고, 상적 해석이 달라지는 과정을 이/삼차원 기하도식을 통해 제시하였다. 동결식의 형성은 동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작으로, 결과 보어는 핵심 동사에 종결성을 부여한다. 이때 상 윤곽 중 전이 국면이 현저하게 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동사구 단계에서 복수 명사, 추상 명사와 같은 불가산 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경우, 또 절 단계에서 '慢慢地'와 같은 부사어가 추가되는 경우 이러한 상적 해석은 달라질 수 있고, 상 윤곽 중 현저한 국면은 종결의 전이 국면에서 종결 이전의 과정 국면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동결식은 주로 과정 국면을 가지지 않는 경계 지어진 사건, 즉 성취류로 이해되어 왔다. '동결식+了'는 일종의 고정적인 형식으로 이해되며, 동

결식이 종결성을 가지고 과정을 가지지 않는 순간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반면 미완료상과 공기하는 동결식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치부되어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동결식이 사용된 문장의 상 윤곽에 현저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과정 국면이 존재하고 여러 요인을 통해 그러한 과정 국면이 현저성을 부여 받을 수 있다면, 해당 문장은 진행상과 공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Croft(2012:155)는 진행상에 사용되는 사건의 특징을 “t축과 q축에서 확장할 수 있고, t축과 q축에서 비경계적이며, t축과 q축의 중간에 위치한 일시적 상태”라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반복해서 출현하는 순환 성취(비방향적 활동),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점진적 변화 상태(‘more and more’, ‘better and better’ 등 부사 필요) 등을 진행상과 공기 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제시하였다.⁵⁾ 결국 앞서 살펴 본 결과 보어, 목적어, 부사어 등이 각각 동사 단계, 동사구 단계, 절 단계에서 진행상에 사용될 수 있는 사건의 특징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해당 문장은 완료상 및 미완료상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상적 잠재력을 부여 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점은, 형태적으로 동사와 보어가 나타내는 두 개의 하위 사건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동결식의 경우 결과 출현의 전이 국면이 매우 현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완료상 ‘了’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동결식을 술어로 취한 문장은 진행상 보다는 완료상에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필연적인 현상은 아니며,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한 상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5) Croft(2012:152-155)에서는 진행상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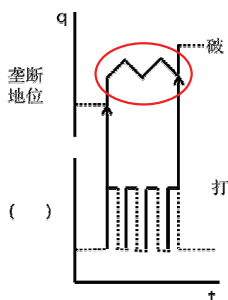
- 1) 비방향성 활동: 순환 성취류의 반복적 발생
- 2) 방향성 활동: 방향성 완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점진적 변화 상태(‘more and more’, ‘better and better’ 등 부사 사용)
- 3) 비방향성 완성
- 4) 일시적 상태: 생리 과정 등

그러나 “*I’m being Polish.”, “*The bomb is exploding.”과 같이 상태적 해석 및 순간적 해석을 가진 경우에는 진행상에 사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예문(1)에 대한 설명으로 본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國有石油公司的壟斷地位被打破]에서 보어 ‘破’는 동사 단계에서 동사 ‘打’에 종결점을 부여하고, 상 윤곽 중 ‘沒破’에서 ‘破’로의 전이 국면이 현저성을 부여 받는다. 그러나 동사구 단계에 이르러 추상 명사인 ‘壟斷地位’의 영향으로 본래 순간적 특징을 가졌던 상 윤곽은 순환적 성취류로 전환되고, 이는 다시 비방향적 활동류로 해석되며 현저한 과정 국면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적 특징은 절 단계까지 이어져 완료상과의 공기는 물론 미완료상과도 공기 역시 가능한 상적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國語石油公司的壟斷地位正在被打破”는 적법한 문장이 된다. 이에 대한 삼차원 기하도식은 아래 (24)와 같다

(24) 國有石油公司的壟斷地位正在被打破。 (=1a)

국영 석유 공사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고 있다.



< 參考文獻 >

김천학, <상태와 상태 변화>, 《형태론》, 2013, 15.

卞京, 張輝, <英語時制的體貌功能分析——基於二維幾何表征的分析框架>, 《外語研究》, 2015(04).

陳平, <論現代漢語時間系統的三元結構>, 《中國語文》, 1988, (06).

郭銳, <漢語動詞的過程結構>, 《中國語文》, 1993, (06).

郭銳, <過程和非過程——漢語謂詞生成成分的兩種外在時間類型>, 《中國語文》, 1997,

(03).

李麗云, 《現代漢語動補式複合詞的結構与功能研究》, 河北師範大學博士學位, 2008.

王媛, <現代漢語動結式的進行体>, 《語言科學》, 2011, (01).

于秀金, 彭芳, <漢語定量视点体的二維几何圖解析>, 《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2014, (04).

張翼, <致使語義的概念化和句法表征>, 《外國語》, 2014, 37(4).

Croft, W., *Syntactic Categories and Grammatical Rel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Croft, W., *Verbs: aspect and causal stru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Dahl, O., *Tense and aspect system*, Oxford/N.Y: Blackwall, 1985.

Langacker, R.,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I*,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Van Valin, R., LaPolla, R., *Syntax: structure, meaning and fun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Vendler, Z.,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Xiao & McEnery, A corpus-based two-level model of situation aspect, *J. Linguistics* 40, 2004.

< Abstract >

The Co-occurrence of VRC and Progressive Aspect
- Based on Aspectual Contour and Aspectual Construals

Oh, You-jeong

Verb-Resultative compound(VRC), which has an end-point and has no progress phase,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n achievement type according to Vendler(1967)'s 4-situation aspectual types, and only can co-occur with perfective viewpoint aspect, not with imperfective viewpoint aspect. However,

there are various examples that VRC co-occurs with imperfective aspect, especially with ZhengZai(正在), Zai(在). Croft(2012) considers that situation aspectual type of a predicate is not fixed, but possesses the potential to be conceptualized as several aspectual types, in other words, an aspectual type is just one of the aspectual construals. The two/three-dimensional phasal analysis, which consists of Time(T) dimension and Qualitative states(Q) dimension(and causal chain), shows the foundation of aspectual construals of different situation aspectual types. An aspectual construal is confirmed through the composition at verb-level, verb phrase-level, clause-level. Therefore, achievement which is considered as the aspectual type of VRC, is only just an aspectual construal at the verb-level, and it can be changed to other types at further levels. These operations at different levels cause a sentence which has VRC as a verb to co-occur with different viewpoint aspect, including progressive aspect ZhengZai, Zai.

Key words: VRC, (Zheng)Zai, viewpoint aspect, situation aspect, aspectual contour, aspectual construals, two/three-dimensional phasal analysi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7. 29.	2017. 08. 27.	2017. 09. 07.	2017. 09. 17.	2017. 09. 30.